

'미래 담는 전북교육, 행복한 배움 꿈꾸다'

도교육청, 미래교육 포럼 개최... 교원 400여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지난 달 30일 전주 더 메이호텔 메이벨즈홀에서 2022년 전북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세세시인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과정에 담아 행복한 배움으로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전북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당초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이틀 만에 400여 명이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참여한 송은정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력 회복을 통한 전북미래교육 청사진'을 주제로 전북교육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북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갑리교신학대학교 송순재 교수는 '미래학교 공간의

의미찾기'를 주제로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 이동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요청되는 공간의 성격과 특징을 제시하며, 전북미래교육이 펼쳐지는 학교 공간은 디지털화 된 공간의 한계에서 더 나아가 교육 주체의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적 상상력을 더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우순 순화교 오래된 미래 김용규 교장은 교육과 삶에 던지는 근본적 질문을 통해 미래교육에 생태교육이 필요함을, 광주 대안초등학교 송이나 수석교사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사와 학생의 역량 함양, 엄밀중 왕신여자중학교 교장은 혁신학교에서의 혁신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정책화를 위한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육 대전환을 언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미래 사회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전북미래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전북도교육청 지난 달 30일 전주 더 메이호텔 메이벨즈홀에서 2022년 전북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전북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 전북미래교육의 개념과 비전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교육 운영과 전북미래교육 중장기 운영 계획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잡케어 서비스' 운영 '취업 희망 청년 사회진출 도우미'

AI 빅데이터 기반 직업훈련 등 추천 적성 맞는 일자리 제공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 플러스)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해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기반 '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잡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파악한 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업훈련과 자격 등을 추천하고 구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알려준다.

이승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잡케어 서비스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 국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고용 문제 해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잡케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063-290-1951~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해양용 SMR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 협력

군산대, 특수목적선협회 등과 협약 체결... 산업화 노력키로

군산대학교(이장호 총장)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급성상하고 있는 SMR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하고, 산학연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군산대는 지난 달 29일 군산새만금권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특수목적선협회(이사장 김규선), 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소장 임채영), KAIST 신형원자로연구센터(센터장 정용훈)와 '해양용 SMR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산업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학술 세미나 정책 포럼 등을 통하여 그동안 연구해온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 시설 및 장비 등 공동 활용해, 전문인력 및 관련 기업에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SMR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소형화, 모듈화하여 발전소를 통째로 이동체에 탑재할 수 있고, 발전소를 이어가 국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고용 문제 해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잡케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063-290-1951~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달 29일 군산새만금권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특수목적선협회, 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 KAIST 신형원자로연구센터와 해양용 SMR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산업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능하다. 군산대는 이런 SMR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용 SMR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과 KAIST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과 군산대와 특수목적선협회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기술을 접목하여 해양용 SMR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는 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IT, 전력, 기계,

수산 분야에서도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SMR 산업화에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기관들은 업무협약에 이어서 2022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SMR 정책포럼에 참가해 SMR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특히 새만금지역에서 SMR 산업화에 관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군산=김판관 기자

도내 대학생 대상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구·일자리·복지 등 주제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국내 소재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인구, 일자리, 환경, 복지, 대학·공동체 활성화(산학협력), 문화 관광, 사회공헌 등 전라북도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자율주제다.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www.jbiles.or.kr/) 공고/고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 등을 받아 공

모전 담당자 전자우편(gyoju1@jiles.or.kr)으로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아이디어 적절성 실현가능성, 논리성 지역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로 20개 팀을 선발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1팀(350만원), 우수상 3팀(각 250만원), 장려상 8팀(각 150만원) 입선 10팀(각 100만원)에 상금을 수여한다.

김학권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전라북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기 넘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단

LINC 3.0 사업단 공동 주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상진 단장)과 LINC 3.0 사업단(주승 단장)이 공동 주최하는 전력변환기술 Open Campus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인 전력변환기술 오픈캠퍼스 세미나는 지난 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주대학교 공학2관 204C호에서 학부·대학원생·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력변환기술 최고 전문가 12명을 강사로 초청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오픈캠퍼스 세미나 첫날인 지난 9월 30일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강대욱 박사가 '내용량 멀티레벨 컨버터'를 주제로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주대를 비롯한 전북대, 군산대 등 3개 참여대학 교수, 학부·대학원생, 도내 친환경에너지 전문인력·전력전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임직원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오픈캠퍼스 릴레이 세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주승 단장)이 공동 주최하는 전력변환기술 Open Campus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달 30일 열렸다.

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전주대학교를 비롯한 전북대, 군산대 등 세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지역 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과제책임자인 전주대 김은수 교수는 "이번 릴레이 오픈캠퍼스를 통해 신재생 등 친환경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기술 또는 친환경 전자기,

슈퍼커패시터 등 전력전자 분야 기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기업체 재직자에게는 전력변환 분야 직무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압전 물질 성능 향상 방안 연구성과 '호평'

전북대 김현승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우수'

전북대학교 김현승 대학원생(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정창규)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2022(MCARE 2022)'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화학공학회(KICHE)와 미국세라믹학회(ACAS)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다. 올해 12개국 500편 이상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로, 대체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현승 대학원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버려지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압전(Piezoelectric) 물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담은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정창규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한국재료학회 등 여러 국내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적은 다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연구실 학생들이 보다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4단계 BK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문기술인 양성 교육 성황리 진행

시용합교육 자격취득 데이터리벨러 수료과정 등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4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용합교육 자격취득과정 △데이터리벨러 수료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60시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특화 전문기술인 양성 및 신입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코딩분야의 이론부터 실무형 현장실습 교육까지, 전문 직무역량 강화 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실시, 각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았다.

김순정 평생교육원장은 "지역의 경력단절자 및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 양성 차원의 현장 실무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라북도의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